

삼풍백화점 붕괴·박근혜 탄핵...속보·이슈로 본 역사적 '사건사'



박근혜 파면...국민의 승리

헌재 8:0 만장일치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해 권한 남용 -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선거 5월 9일 유력... 각 당 대선제제 전환

총선 2018까지 선거권 종료

4월 15일 투표자등록 신청

사전투표 4월 4~5일 예정

투표시간 08:00~18:00

투표장 1인당 1회

투표지 1인당 1회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

정운현 지음

안중근·나석주·윤봉길 의사의 의거, 4·19혁명, 6·29선언,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페리호 침몰 등...

위에 열거된 내용은 우리 현대사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 각각의 소식을 기쁨과 애환, 전율과 슬픔, 더러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들 소식을 공통적으로 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호외'다.

사실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속도'다.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도처에 있는 이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호외'라는 지면이 발행했다. 호외는 호수(號數)가 매겨진 정규 발행판 외에 제작된 신문을 말한다. 70, 80년대만 해도 신문 배달 소년들이 외치던 '호외'라

강화도 조약서 북미정상회담까지 호외 통해 본 격동의 순간들

호외는 시대 반영하는 거울이자 역사의 기록

인터넷 밀려 속보 기능보다 기록 보존 의미 가까워

는 소리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호외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일이 터졌다 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호외'는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호외가 발행되기 전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뉴스가 속보로 떠버리기 때문이다. 호외의 가치와 의미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빈도는 줄었지만 호외는 여전히 발행된다. 빨리 보도한다는 의미보다 기록과 보존의 의미가 가깝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의 순간들을 호외를 통해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몰려 있는 한국 현대사',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의 작가인 기자 출신 정운현 씨가 펴낸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가 그것. 책은 지난 97년 저자가 펴낸 '호외, 백 년의 기억들'을 개정 출간한 것으로 20년 동안 새로 발행된 호외들이 추가됐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제1차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4강 신화, 노무현 대통령 사망,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저자는 '호외사'는 우리 역사의 '사건사'라고 정의한다. 호외의 역사는 지난 역사 속 대사건들의 색인과 마찬가지로

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결정에 지하신문의 호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과 함께 미국정이 시작되면서 좌우대립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다.

한국 신문계에서 호외의 제2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호외가 발행되자 한국신문 협회가 자율적으로 호외 발행을 자제할 정도였다. 1970년대에는 '올림픽 호외'도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호외는 급격히 줄어든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보 매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적인 이슈였던 박근혜 탄핵,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호외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기록해가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호외에 대해 "이 땅에 등장한 지 한 세기를 넘기면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완전히 멸종되기 전에 호외의 역사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인문서원·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력

소설가인 박성천지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3·1운동을 전후해 국내에서는 지하신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발행하는 호외는 일제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항일 지하신문을 색출, 압수하는 데 신물이 난 일제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민간 상업지를 허가하기

를 위해 '호외'라는 지면이 발행했다. 호외는 호수(號數)가 매겨진 정규 발행판 외에 제작된 신문을 말한다. 70, 80년대만 해도 신문 배달 소년들이 외치던 '호외'라

는 소리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호외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일이 터졌다 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호외'는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호외가 발행되기 전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뉴스가 속보로 떠버리기 때문이다. 호외의 가치와 의미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빈도는 줄었지만 호외는 여전히 발행된다. 빨리 보도한다는 의미보다 기록과 보존의 의미가 가깝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의 순간들을 호외를 통해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몰려 있는 한국 현대사',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의 작가인 기자 출신 정운현 씨가 펴낸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가 그것. 책은 지난 97년 저자가 펴낸 '호외, 백 년의 기억들'을 개정 출간한 것으로 20년 동안 새로 발행된 호외들이 추가됐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제1차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4강 신화, 노무현 대통령 사망,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저자는 '호외사'는 우리 역사의 '사건사'라고 정의한다. 호외의 역사는 지난 역사 속 대사건들의 색인과 마찬가지로

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결정에 지하신문의 호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과 함께 미국정이 시작되면서 좌우대립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다.

한국 신문계에서 호외의 제2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호외가 발행되자 한국신문 협회가 자율적으로 호외 발행을 자제할 정도였다. 1970년대에는 '올림픽 호외'도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호외는 급격히 줄어든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보 매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적인 이슈였던 박근혜 탄핵,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호외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기록해가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호외에 대해 "이 땅에 등장한 지 한 세기를 넘기면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완전히 멸종되기 전에 호외의 역사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인문서원·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력

소설가인 박성천지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3·1운동을 전후해 국내에서는 지하신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발행하는 호외는 일제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항일 지하신문을 색출, 압수하는 데 신물이 난 일제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민간 상업지를 허가하기

를 위해 '호외'라는 지면이 발행했다. 호외는 호수(號數)가 매겨진 정규 발행판 외에 제작된 신문을 말한다. 70, 80년대만 해도 신문 배달 소년들이 외치던 '호외'라

는 소리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호외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일이 터졌다 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호외'는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호외가 발행되기 전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뉴스가 속보로 떠버리기 때문이다. 호외의 가치와 의미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빈도는 줄었지만 호외는 여전히 발행된다. 빨리 보도한다는 의미보다 기록과 보존의 의미가 가깝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의 순간들을 호외를 통해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몰려 있는 한국 현대사',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의 작가인 기자 출신 정운현 씨가 펴낸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가 그것. 책은 지난 97년 저자가 펴낸 '호외, 백 년의 기억들'을 개정 출간한 것으로 20년 동안 새로 발행된 호외들이 추가됐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제1차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4강 신화, 노무현 대통령 사망,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저자는 '호외사'는 우리 역사의 '사건사'라고 정의한다. 호외의 역사는 지난 역사 속 대사건들의 색인과 마찬가지로

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결정에 지하신문의 호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과 함께 미국정이 시작되면서 좌우대립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다.

한국 신문계에서 호외의 제2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호외가 발행되자 한국신문 협회가 자율적으로 호외 발행을 자제할 정도였다. 1970년대에는 '올림픽 호외'도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호외는 급격히 줄어든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보 매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적인 이슈였던 박근혜 탄핵,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호외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기록해가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호외에 대해 "이 땅에 등장한 지 한 세기를 넘기면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완전히 멸종되기 전에 호외의 역사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인문서원·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력

소설가인 박성천지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3·1운동을 전후해 국내에서는 지하신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발행하는 호외는 일제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항일 지하신문을 색출, 압수하는 데 신물이 난 일제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민간 상업지를 허가하기

를 위해 '호외'라는 지면이 발행했다. 호외는 호수(號數)가 매겨진 정규 발행판 외에 제작된 신문을 말한다. 70, 80년대만 해도 신문 배달 소년들이 외치던 '호외'라

는 소리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호외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일이 터졌다 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호외'는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호외가 발행되기 전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뉴스가 속보로 떠버리기 때문이다. 호외의 가치와 의미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빈도는 줄었지만 호외는 여전히 발행된다. 빨리 보도한다는 의미보다 기록과 보존의 의미가 가깝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의 순간들을 호외를 통해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몰려 있는 한국 현대사',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의 작가인 기자 출신 정운현 씨가 펴낸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가 그것. 책은 지난 97년 저자가 펴낸 '호외, 백 년의 기억들'을 개정 출간한 것으로 20년 동안 새로 발행된 호외들이 추가됐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제1차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4강 신화, 노무현 대통령 사망,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저자는 '호외사'는 우리 역사의 '사건사'라고 정의한다. 호외의 역사는 지난 역사 속 대사건들의 색인과 마찬가지로

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결정에 지하신문의 호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과 함께 미국정이 시작되면서 좌우대립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다.

한국 신문계에서 호외의 제2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호외가 발행되자 한국신문 협회가 자율적으로 호외 발행을 자제할 정도였다. 1970년대에는 '올림픽 호외'도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호외는 급격히 줄어든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보 매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적인 이슈였던 박근혜 탄핵,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호외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기록해가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호외에 대해 "이 땅에 등장한 지 한 세기를 넘기면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완전히 멸종되기 전에 호외의 역사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인문서원·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력

소설가인 박성천지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3·1운동을 전후해 국내에서는 지하신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발행하는 호외는 일제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항일 지하신문을 색출, 압수하는 데 신물이 난 일제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민간 상업지를 허가하기

를 위해 '호외'라는 지면이 발행했다. 호외는 호수(號數)가 매겨진 정규 발행판 외에 제작된 신문을 말한다. 70, 80년대만 해도 신문 배달 소년들이 외치던 '호외'라

는 소리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호외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일이 터졌다 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호외'는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호외가 발행되기 전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뉴스가 속보로 떠버리기 때문이다. 호외의 가치와 의미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빈도는 줄었지만 호외는 여전히 발행된다. 빨리 보도한다는 의미보다 기록과 보존의 의미가 가깝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의 순간들을 호외를 통해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몰려 있는 한국 현대사',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의 작가인 기자 출신 정운현 씨가 펴낸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가 그것. 책은 지난 97년 저자가 펴낸 '호외, 백 년의 기억들'을 개정 출간한 것으로 20년 동안 새로 발행된 호외들이 추가됐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제1차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4강 신화, 노무현 대통령 사망,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저자는 '호외사'는 우리 역사의 '사건사'라고 정의한다. 호외의 역사는 지난 역사 속 대사건들의 색인과 마찬가지로

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결정에 지하신문의 호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과 함께 미국정이 시작되면서 좌우대립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다.

한국 신문계에서 호외의 제2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호외가 발행되자 한국신문 협회가 자율적으로 호외 발행을 자제할 정도였다. 1970년대에는 '올림픽 호외'도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호외는 급격히 줄어든다. 2000년대 들어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보 매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적인 이슈였던 박근혜 탄핵,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호외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기록해가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호외에 대해 "이 땅에 등장한 지 한 세기를 넘기면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완전히 멸종되기 전에 호외의 역사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인문서원·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에도 무게가 있다

김금희 지음

"지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한다. 다소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아픈 꽃들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안고 있는 꽃들을 생각했다."

여수 출신 김금희 시인이 시산책 제19차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으로 '꽃에도 무게가 있다'를 펴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작품집에는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 '절벽, 구절초가 다짐하다', '오래오래 꽃처럼', '벚꽃 필 때와 벚꽃 질 때', '꽃에도 무게가 있다', '미화말밭도리 꽃', '명자꽃' 등 시인의 섬세한 감수성이 빛나는 작품은 서정적이고 깊은 울림을 준다.

"이 가슴 뛰며 지나간다/ 이슬에 젖어 흘날린다// 자동차는 꽃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다/ 달리는 거리만큼 꽃은 내 맘에 쌓이고// 이불처럼 덮인 병상의 꽃이 무거워/ 나는 그만 꽃 무덤에 잠기고 만다// 꿈결처럼 오피리아를 찾다/ 잠잠히 황홀경에 빠져 들어 버린다"('꽃에도 무게가 있다' 중)

표제시 '꽃에도 무게가 있다'는 짧은 날 보았던 꽃거리를 오늘의 풍경과 겹쳐 떠오르는 단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자동차 바퀴에 짓겨지는 꽃잎을 시인은 '이불처럼 덮인 병상의 꽃'으로 표현한다. 지나온 시간이 "그만 꽃 무덤에 잠기고" 마는 순간으로 치환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꽃)일수록 그에 못지않은 무게가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는 그렇게 모든 이의 인생은 한송이 꽃과 같다는 진실을 아프게 노래하는 듯 하다.

<시산책·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100년

법륜·오연호 지음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 이 문제는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되짚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듯 합니다."

"그 하나가 자기주도성이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분단의 과정에서 우리를 마음속에 적대 감정이 많이 생기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통일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죽목죽살'을 통한 대중들의 인생 멘토로 유명한 법륜 스님과 오연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심층 대담으로 화제를 모았던 '새로운 100년'이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다시 오연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시원한 답을 준다.

책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고차방정식과 국제정세의 달라진 판에 대해 이야기 한다. 국민들의 뜻이 담긴 촛불혁명으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북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경쟁 구도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이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온 법륜 스님은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책을 통해 붕괴돼 가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까지 냉철하게 평가한다. 미중 패권경쟁과 신질서 구축, 그 속에서 요동치는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

<오마이북·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판타지 문학의 비밀

이수경 지음

'판타지문학 여행을 떠나자.' 판타지는 18세기 말, 낭만주의가 등장한 이후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판타지문학 전문가인 이수경 건국대학교 동화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가 '판타지 문학의 비밀'을 펴냈다. 이 책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론부터 작품 해설, 그림까지 입체적으로 정리한 판타지문학의 이론서다. 난해하고 복잡한 판타지 문학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이 책은 24편의 작품을 비스무리한 주제와 유형으로 분류했다. '피터팬', '오즈의 마법사' 등 책에 실린 24편의 작품들은 스토리 자체가 지니는 힘만으로도 충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내재된 의미는 시대를 뛰어 넘은 보편적 가치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 책에는 판타지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판타지의 유래, 그리고 발달과정도 잘 요약돼 있다. 판타지는 오래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 전설, 민담에 포함돼 있었다. 지은이는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판타지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세밀하게 풀어나가 판타지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유명한 판타지 작품들을 하위 장르 별로 분류하고 판타지 문학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폭 넓은 이해를 돕는다.